

#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서 무료로 녹음하세요”

뮤지션, 음악단체, 일반인 등 누구나 3월 한달간 무료 이용

스튜디오, 음향 장비 갖춰 밴드·개인 악기·보컬 녹음

양리머스·김석준 밴드 등 40여 장 음반 작업 진행도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녹음실이 있는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이하 음악센터)는 지난 2015년 광주시 남구 사직동 통기타 거리 언덕 위 옛 KBS 광주방송국 사옥에 문을 열고 공연·음반 제작 지원, 신진 뮤지션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 음원 및 공연 제작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지역 음악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음악축제인 사운드파크 페스티벌 등도 열었다.

음악센터가 이번에는 녹음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이곳을 찾았다.

음악센터 2층에는 밴드는 물론 악단, 오케스트라까지 음악에 관한 모든 녹음이 가능한 스튜디오 A와 개인 악기 및 보컬 녹음, 밴드 연습실을 겸한 음향편집실인 스튜디오 B 이렇게 두 개의 녹음실이 있는데, 지난 2020년 11월 시설 리모델링과 음향장비 업데이트를 통해 좀 더 쾌적하고 전문적인 녹음실로 변신했다.

스튜디오 A에 들어갔을 때 여러가지 음향 장비보다 눈에 띈 건 장비 정면 벽에 걸려진 스



소규모 밴드 등을 위한 11평 규모의 스튜디오 B.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에서 제작된 지역 뮤지션들의 음반



김익모 작 '잠미'



김인수 작 '바람-넝쿨'



## '봄을 꺼내다'

드영미술관, 4월10일까지 '캐비닛전'

곽수봉·구만채·박지택 등 11명 참여

'화사한 봄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무등산 자락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은 미술관이 소장품 기획전 소장품 기획전 '캐비닛 전시'를 통해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캐비닛 전시는 '봄'을 주제로 구성했다.

'봄을 꺼내다'를 주제로 오는 4월 10일까지 열리는 전시에서는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 중 봄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그림을 만날 수 있다.

전시에서는 한국화, 서양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곽수봉·구만채·김도영·김익모·김인수·박지택·양나희·이두환·정상삼·정혜정·S. T Seekhu 등 11명의 작품 17점을 선보인다. 전시작들은 자연 풍경과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각자 묵묵히 꾸려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담은 인물들을 만나고 자연의 생명력을 만끽할 수 있는 그림들이다.

두터운 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붓치와 화사한 색감이 눈길을 끈다. 김익모 작가의 '잠미', 화면을 장식하는 입체감과 동화적 느낌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꽃과 새가 어우러진 정혜정의 '언제나 그 자리에', 상큼한 봄바람의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김인수 작가의 추상 작품 '바람, 넝쿨' 등이 전시된다.

또 화사한 꽃나무가 화면을 가득 채운 정상삼 작가의 '봄날'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봄의 기운을 전달한다.

전시 제목 '봄을 꺼내다'는 희망찬 앞날이나 행운, 긍정적인 표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봄(spring)'과 시각을 나타내는 '봄(see)'을 뜻하는 중의적 의미를 지닌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는 3월 한달간 무료로 녹음실을 이용할 수 있는 '레코딩 프리 패스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진은 70평 규모의 녹음실을 갖춘 스튜디오 A 모습.

# 박상영 '대도시의 사랑법', 정보라 '저주 토끼' 세계 3대 문학상 '부커상' 후보에 올라



노벨문학상, 프랑스 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부커상에 한국 작가 2명이 후보에 올라 화제다. 주인공은 박상영, 정보라 작가로 이들은 영국 권위의 문학상인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후보에 지명됐다.

부커재단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박상영의 '대도시의 사랑법', 정보라의 '저주 토끼'가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1차 후보에 올랐다.

한국 작가 2명의 작품이 각각 후보에 지명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 2016년 광주 출신 한강이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해 국내 독자들에게도 많이 알려졌다. 부커상은 2019년까지 맨부커상으로 불렸다.

인터내셔널 부문은 비영어권 작가들의 영어 번역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한다. 먼저 1차 후보로 13편을 발표하고 최종 후보로 6편을 선정한다. 이번 후보자 경쟁작에는 지난 201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폴란드 작가 올가 코

카르추크의 '야곱의 책들'과 2017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받은 이스라엘 작가 데이비드 그로스만의 '모어 댄 아이 러브 마이 라이프' 등이다.

박상영 작가의 '대도시 사랑법'은 한국문학의 중요한 소재로 떠오른 쿨어소설을 다룬 작품이다. 지난 2019년 젊은작가상 대상 수상작인 '우려한점 우주의 맛'을 비롯해 4편의 중단편을 엮은 연작소설이다. 청춘의 사랑과 이별을 유머를 가미한 성찰로 밀도있게 그렸다. 동성애자인 작가 '영'이 좌충우돌하며 인생과 사랑을 조금씩 배우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박 작가는 한편의 소설집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파스타'로 일약 많은 독자들을 매료시키며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저자는 성에 대해 얼핏 가볍게 보일 수 있는 면모를 오히려 작품의 매력으로 끌어올렸으며 그 안에 녹록지 않은 사유를 담아냈다는 평을 받

았다.

정보라 작가의 '저주 토끼'는 세상의 몸살 것들을 응징하는 어엿한 저주 이야기이다. SF 판타지를 대표하는 정 작가의 다섯 번째 책으로 10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배경과 인물, 사건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저자는 특유의 상상력으로 복수를 구현한다.

저자는 "원래 세상은 쓸쓸한 곳이고 모든 존재는 혼자이며 사팔귀정이나 권선징악 혹은 복수는 경우에 따라 반드시 필요하지 모르지만 그렇게 필요한 일을 완수한 뒤에도 세상은 여전히 쓸쓸하고 인간은 여전히 외로우며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박 작가와 정 작가의 두 작품 모두 한국인 번역가 안톤 허가 영어로 옮겨 함께 후보에 이름을 올린 점도 눈에 띈다. 스웨덴에서 태어나 외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안톤 허는 2018년부터 신경숙의 '리진'과 '바이올렛', 황석영의 '수인' 등을 번역했다.

한편 올해 13편은 12개국에서 출간된 뒤 영어로 번역된 작품들로 최종 후보작은 오는 4월 7일 발표된다. 수상작은 5월 26일 가려질 예정이다. /박성진 기자 skypark@

## 전남문화재단, '실버마이크' 진행 60세 이상 어르신 공연 프로그램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선출)은 올해 처음으로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사업을 진행한다.

'실버마이크'는 어르신들의 주제적이고 능동적인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문화가 있는 삶'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으로부터 국비 2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실버마이크'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문화가 있는 날'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전남, 강원, 울산, 전북, 충북 지역 다중이용시설 및 지역 생활밀착형 공간에서 공연 실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공연팀이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지난 2020년 '청춘마이크' 사업을 주관했던 경험을 살려 실버세대의 활동영역 확장,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문화권 보장, 지속가능한 사업 기반 구축 등을 목표로 이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단은 총 20개 어르신 공연팀을 선정해 전남 22개 시·군 지역에서 총 100회의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친환경·배리어프리 공연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